세계 최고의 뮤지컬 광주에 온다

지킬앤하이드

'세계 최고의 지킬과 하이드를 만나다.'

지난 2004년 한국에서 초연됐던 '지킬 앤 하이드'는 숱한 화제를 뿌리며 뮤지컬팬들을 사로잡았다. '보물섬'의 작가 루이스 스티븐슨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지킬 앤 하이드'는 탄탄한 스토리와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로 기립박수 신화를 일궈냈다.

브래드 리틀 등 세계 정상급 배우 출연… 10월 24~25일 문예회관

특히 영화배우 조승우를 최고의 뮤지컬 스타로 등극시켰으며 앙코르 공연 당시 티켓 오픈 7시간만에 1만 2천장 판매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지킬 앤 하이드' 한국어 버전은 5년간 유료관객 30만명을 동원하며 지속적인 인기를 모아왔고 많은 뮤지컬팬들이 해외 오리지널 팀의 공연을 학수고대했다.

2009광주국제공연예술제(10월20일~31일) 공식 초청작인 '지킬 앤 하이드'는 해외 오리지널팀의 첫번째 내한 공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남자 뮤지컬 배우로 꼽히는 브래드 리틀이 타이틀 롤을 맡았다는 점에서 뮤지컬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지킬 앤 하이드' 오리지널팀 공연은 28일 시작되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거쳐 오는 10월 24~25일(오후 3시·7시30분) 이틀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광주팬들을 만난다.

▲세계정상급 배우를 만난다.

'지킬 앤 하이드'의 이번 내한 공연이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건 브래드 리틀 때문이다.

지킬과 하이드 1인 2역을 맡은 브래드 리틀은 한국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다. 지난 2003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오페라의 유령'에서 파워풀한 보컬과 섬세한 내면 연기로 강한 인상을 남긴 그는 '오페라의 유령'의 주인공 펜텀역만 2천 100여회 맡아 최다 출연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브로드웨이 버전에서도 지킬 역을 맡은 바 있는 브래드 리틀은 선과 악의 이중성을 갖고 있는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번 공연에는 지킬의 약혼자 엠마 역의 루시 몬더와 하이드의 사랑을 받는 루시 역의 벨리다 월스톤을 비롯,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앙상블 팀이 함께 무대에 선다.

한국어 버전 공연 당시 무대 등이 다소 아쉬웠던 데 비해 이번 오리지널 팀은 새로운 무대 디자인과 세트를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캣츠'의 안무가인 조앤 로빈슨이 참여해 새롭게 구성한 군무 장면은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지킬 앤 하이드'는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월드 투어에 나설 계획이다.

▲탄탄한 스토리, 주옥같은 멜로디

'지킬 앤 하이드' 한국어 버전이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탄탄한 줄거리와 아름다운 음악에 있다.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지킬 앤 하이드'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의사 '지킬'과 괴물 '하이드'의 모습은 인간 내면의 두 개의 본성인 선과 악을 대변하고 있다.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실험을 진행하던 지킬은 지원자가 없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지만 그의 인격은 선과 악으로 구별돼 악인 '하이드'를 만들어내고 만다.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는 '아름다운 멜로디에 실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여러 가수가 불러 유명해진 'Once upon a dream' 'This is the moment'가 대표적이며 특히 조명과 목소리만으로 지킬과 하이드 두가지 모습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부르는 'Confrontation'은 압권이다.

티켓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판매하기 시작한다. 가격 12만원~4만원. 문의 062-220-0541, 1588-0766, 062-654-8722. 티켓마루, 티켓링크, 옥션티켓.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림 감상하며 차 한잔~

나인갤러리 '카페 드 플로르' 오픈

'갤러리 속 카페.'

지난 3월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 옛 무등미술관 자리에 새 둥지를 튼 나인갤러리(관장 양승찬)가 27일 '카페 드 플로르'를 오픈했다.

갤러리 1층에 자리잡은 카페는 간단한 음료를 마시며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나인갤러리는 카페 오픈 기념전으로 이이남·고근호·최재영·박소빈·김숙빈씨 등 지역 작가 20여명의 소품을 전시하는 '플로르 전'(9월12일까지)을 열고 있다. 카페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며 전시가 없는 날에도 문을 연다. 주메뉴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와 쥬스, 맥주, 와인 등이다.

카페 이름은 카뮈, 사르트르, 시몬드 보부아르 등이 자주 다니는 등 프랑스 지성과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던 파리의 유서깊은 카페에서 따왔다.문의 070-8783-232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림을 감상하며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카페 드 플로르'가 나인갤러리 1층에 27일 문을 열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판소리 고법 김성권 선생을 기리며

광주서 '제1회 청암전국고수대회'

29일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판소리 고법의 대가였던 청암 김성권(사진) 선생을 기리고 국악 신예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된 '제1회 청암전국고수대회'가 29일 광주 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사)청암판소리고법 보존회와 광주불교방송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고수들이 참가해 일반부와 신인부, 장년부로 나눠 경연을 펼친다.

시상은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에 걸쳐 각각 상금과 부상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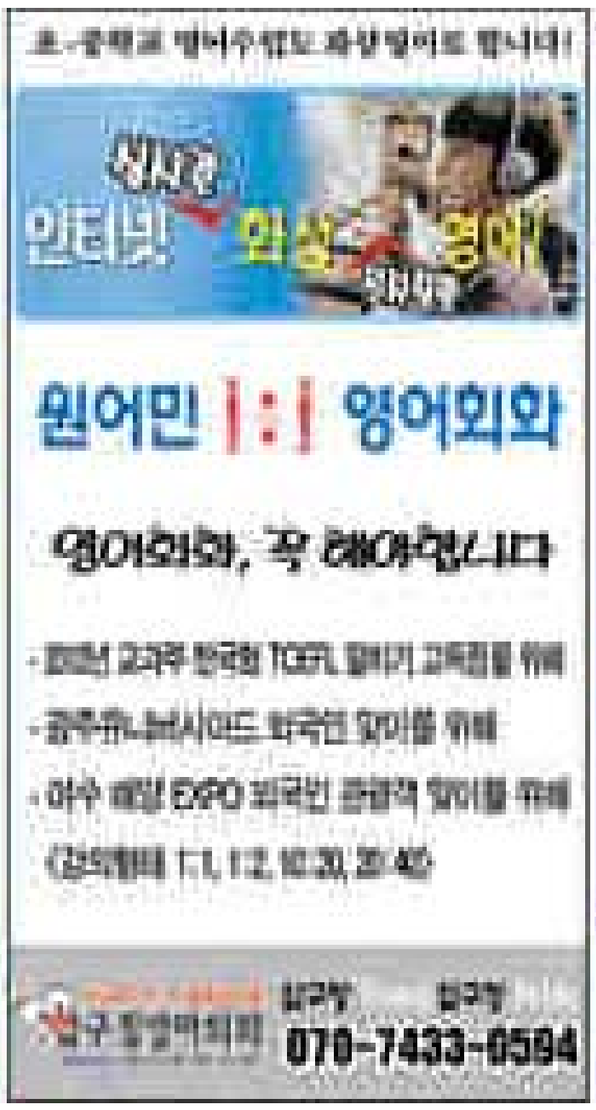
경연 후에는 시상식과 함께 추모공연도 준비돼 있다. 추모시와 헌화가 이어지고 제자와 지인들이 나서 씻김굿을 위한 진혼무, 가야금 병창, 판소리 공연 등이 펼쳐진다.

청암 김성권 선생은 국창 김채만 선생(서편제 대맥)의 증손자로, 성창순 명창의 부친인 성원목 명고수로부터 고법을 전수받았으며 지난 1991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로 지정돼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다 지난해 8월 작고했다. 문의 062-672-55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동문화재단 강사 선발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은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선발,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교육한다.

문화예술교육 강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전문인력으로 현장교육과 심화과정을 거쳐 2010년 4월부터 초등학교에 파견될 예정이다.

문화예술, 역사문화 관련 전공자와 문화예술교육 경험자 등 35명을 선발하며 접수마감은 9월 2일까지. 문의 062-674-6567. /김대성기자 bigkim@